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이룩하신 오늘도 잊지 못하는 강계의 눈보라

눈보라! 어이하여 우리의 가슴속에 눈보라가 그리도 소중히 간직되었으며 그토록 뜨거운 추억을 자아내는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력사가 이 땅에 흘렀던가!

어느덧 10여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치신 강계의 눈보라를 잊을수 없다.

눈보라!

우리 장군님 강계의 의지로 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시기를 위하여 자강도사람들을 찾아가셨을 때 휘몰아친 강계의 눈보라, 우리 장군님 가진 길이 없다는것을 뜨겁게 확증해준 혁명의 눈보라, 잊지 못할 력사의 1월이었다.

강산같이 쌓인 눈, 가슴을 부리는 바람.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걸머지시고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길에 나서시었다. 험한 산골지형과 불리한 도로상태를 놓고 격정하는 일군에게 그이께서는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강행군시기가 아닌가. 내가 알장어나가야 인민이 따라오고 강행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나도 인민들과 같이 강행군을 하여야 한다. ...

이 열화의 정신을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었다.

주제 87(1998)년 1월 어느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차는 자강군을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그러다가 뜻밖의 정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손달구지며 쪽발구, 썰매 그리고 배낭에 지름을 싣고 지고 눈덮인 도로를 출지어 걸어가는 사람들의 긴 행렬로 길이 막혔던것이다.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려고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없다고 하시며 인민들과 함께 가면 된다고, 인민들과 나란히 강행군을 하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한사람한사람 마음속깊이 새겨두시려는듯 눈길을 떼지 않으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름을 운반하는 저 사람들을 보라고,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하고 하시며 저런 인민들과는 하늘땅 끝까지라도 함께 갈수 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인민들과는 하늘땅 끝까지라도 함께!

그 말씀은 혁명의 간고한 행군길을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걸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잊지 못할 나날을 생각하면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전체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어떻게 따뜻한 온돌방을 찾아다니겠는가 하시며 열차에서 하신 야전식사, 우리의것으로 만든 발전소의 설비들을 보시며 바로 이것이 우리식, 주제이고 자력갱생이라고 하시던 그 음성, 자강도로동계급과 인민들에

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가 각별 하였다고 하시면서 나 역시 자강도로동계급과 인민들을 굳게 믿는다고 하신 사랑의 그 말씀...

정녕 우리 장군님 자강 땅을 찾으며 새기신 사랑의 자욱자욱은 그 얼마였던가.

락원의 셋앗, 강성국가건설의 불씨를 자강 땅에 심으시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 해척가신 못 잊을 그 1월이며,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 맞고맞으신 눈보라 이야기하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척가신 그 길이 있었기에 조선혁명이 그 모진 험난한 승리를 넘어 승리와 영광의 성공 탄을 높이 쌓을수 있었을 것이다. 그 눈보라강행군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이 도도히 굽어치는 강물

과 같이 강성국가건설이라는 거창한 장을 장엄히 펼칠수 있었을 것이다. 조국여, 인민여, 강계의 눈보라와 더불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조국의 산과 강, 대지에 그리도 뜨겁게, 그리도 헌히히 적어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발자취는 정녕 그 얼마였나.

조국의 최북단에서부터 최전연까지, 동해에서 서해의 한끝까지, 공장길, 농장길과 마을길, 굽이굽이 아득한 령길을 비롯하여 이 땅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다.

우리는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만년대계를 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혁



뜻깊은 명절들이 전하는 이야기

병사들과 보내신 하루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은 명절날, 휴식날이 따로 없는 불면 불휴의 나날이었다.

주제 88(1999)년 2월 16일 아침 온 나라 인민들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인민들을 만나보러 가야겠다고 하시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떠나시었다.

수백리 눈보라길이었다. 외진 산중의 녀성고사총중대를 찾으며서 녀성군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친어머님의 다정한 사랑을 기울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뒤이어 또 다른 인민군부대의 야외훈련장에서 군인들과 군관가족

들의 훈련을 지도하여주시었다. 아들이 짙은무릎에 속소로 돌아오시어 오늘도 나는 군인들과 하루를 보냈다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해 보내는것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고있어 수령님께서 녀원하신대로 거어어 우리 나라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 온 나라 인민들은 단잠에 들었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창가의 불빛은 꺼질줄 몰랐다.

정방산의 새벽길

주제 86(1997)년 5월 1일에 있는 일이다. 이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잠시라도 휴식하실것을 간청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5.1절이 명절이고 나라의 휴식일이지만 오늘은 정방산으로 가자고 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휴식에 대하여 더 청을 드릴수가 없었다.

해 뜨기 전 이른새벽에 정방산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한 유년지를 돌아보시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 깊이

마을쓰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침해가 붉게 솟아올랐고 유년지로 들어서서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들이 펼쳐지었다.

즐거운 휴식을 하게 될 인민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실 때처럼 조용히 정방산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 기쁜 날에 일하러 가는것도 또한 얼마나 좋은 휴식이요. 오늘은 정말 명절이요. ...

얼마나 뜻깊은 말씀이신가. 정방산의 새벽길에 있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은 곧 휴식이요 명절이었다.

강 원 남

혁명사적표식비앞에서

얼마전 우리가 창도군 대백리를 찾았을 때였다. 사연깊은 혁명사적표식비가 눈에 안겨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7(1998)년 5월 4일 이른새벽 여기에서 토지정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표식비였다.

강원평의 이름없는 농촌길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가슴에 새길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은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건립된 혁명사적표식비마다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어려있었는 것인가.

자신께서 잠시라도 걸음을 늦추면 그만큼 조국의 전진이 떠진다고 하시며 초인간적의지로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절세의 위인의 모습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조국수호의 전초선마다에 건립된 혁명사적표식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치신 선군장정이 곧 조국과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었음을 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어찌 이뿐이랴. 온 나라의 곳 곳마다에 건립된 혁명사적표식비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로동당시대의 전성기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감동

깊이 전하고있다. 혁명사적표식비! 되새길수록 많은 생각을 불러온다.

혁명사적표식비앞에서 천만 군민은 위대한 장군님과 마음속 대화를 나눈다. 그러느라면 장군님을 모시었던 그날의 영광이 삼삼히 떠오르고 자기 부름, 자기 단위에 주신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야말 충정의 맹세가 새차게 불타오른다.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혈연적 뉴대를 뜨겁게 이어주는 사연깊은 혁명사적표식비, 바로 여기서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천만군민이 다지는 맹세는 오직 하나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할것이라고.

본사기자 립 정 호

시대를 빛내시며》 전 72권이 발행되었다. 《주체시대를 빛내시며》 1권-72권에는 항일혁명 투사들과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인민군장병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 혁명렬사, 애국렬사유가족들,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 해외동포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천후로 지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셨으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

도서 《주체시대를 빛내시며》를 펼치고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시는 각계층 회상자들이 쓴 천백수십권의 회상설화가 들어있다.

오늘도 《주체시대를 빛내시며》를 보고 또 보며 사람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별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걸출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력사의 맹세를 안으시고 장강수신성상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어 이룩하신 크나큰 업적을 심정으로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천후로 지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셨으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

삼복철강행군, 심야강행군길을 헤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었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 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에 전후후무한 수령명령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신 크나큰 공적은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흑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선군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위력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면전기시업적은 또 얼마나 위대한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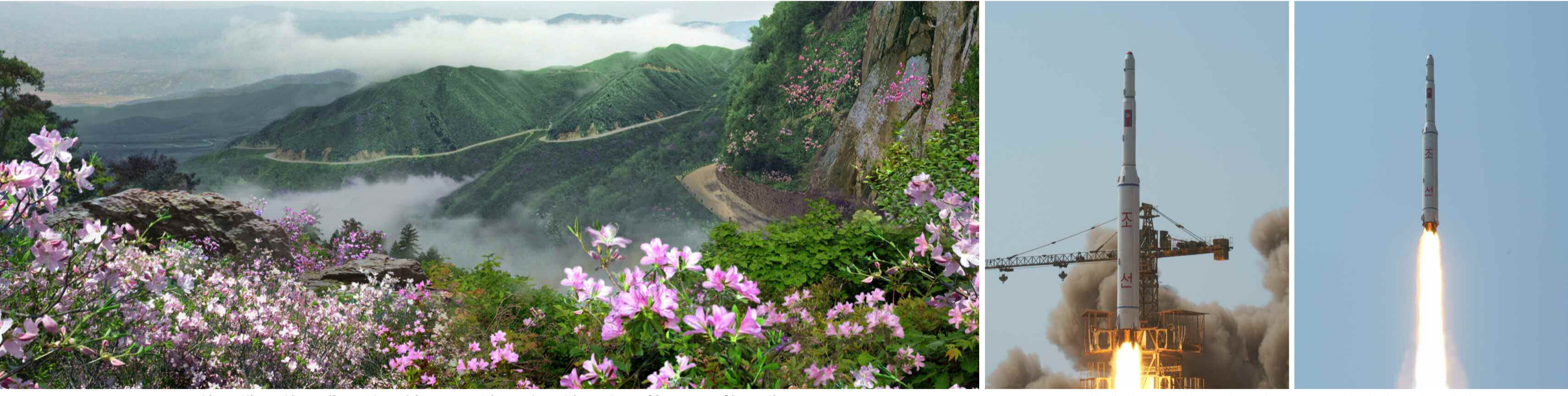
그 모든것은 눈보라강행군, 절세의 애국자, 걸출한 선군명장,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심을 회상설기집 《주체시대를 빛내시며》는 뜨겁게 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토록 크나큰 업적과 천출위인상이 수록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주체시대를 빛내시며》는 온 나라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광범히 애독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외국 의 벗들은 《주체시대를 빛내시며》를 보고 또 보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 시야말로 력사와 만민의 정승속에 영생하시는 걸출한 위인, 태양이라고 격찬하고있다.

회상설기집은 절세의 애국자, 락원한 정치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보여주는 혁명실록으로서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의 교과서, 귀중한 재보로 된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천만심장을 사회주의승리의 환희로 끓게 한 력사적인 화폭들



어 버 이 장 군 님

넙 고 넙 으 신 철 령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성과적으로 발사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주체비날론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주체비료생산기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업적 인민은 못 잊습니다

성강의 봉화는 이렇게 라올랐다

성강, 그 이름 불러보면 조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던 시기 숨죽여가던 대야금기지에서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며 세차게 떠오른 대교조의 봉화가 가슴에 안겨온다.

위대한 평도자와 백절불굴의 로동계급이 강철같은 신념, 쇠물처럼 뜨거운 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지퍼올린 성강의 봉화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사에 참으로 빛나는 페이지를 아로새겼다.

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의 선봉에서 활활 타번지던 성강의 불길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우리 당의 경제건설추진노선을 이끄는 길에서 더 거세게, 더 뜨겁게 솟구쳐오르고있다.

성강의 봉화! 조국의 복방에서 타번지는 그 불길을 바라볼 때면 나라 인민은 선군정치의 간고한 강행군길에서 우리 장군님과 로동계급의 위대한 투쟁의 열연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곤 한다.

주제 87(1998)년은 제국주의원수들의 극악한 봉쇄와 경제체색으로 하여 우리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겪던 시련의 해였다. 가뭄처럼 사회주의수호전을 전두에서 이끄시던 우리 장군님의 전진길에 성강으로 이어지리라 믿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주변이 시련은 전기로들중 불을 지른것은 불과 두기뿐이어서

일터에 찾아오신 아버지장군님께 보호안경도 몇몇이 드리지 못하였던 성강사람들이었다.

순채를 들고 가동하던 압연기에서 아슬하게 돌을 멈추었을 때 모두의 심장은 졸아드는 듯했다.

우리 장군님께 붉은 쇠물과 철강재미를 가슴우련히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 최스러운 일군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고 로동자들은 무수조력으로 눈시울을 흘리었다.

그이께서는 다 알고계셨다. 쏟아지는 쇠물, 쌓여있는 강재미들을 보시려고 찾으신 길이 아니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괴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선군의 길에 함께 나설 혁명동지들을 찾아오신 길이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강철로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보위하여온 영웅적인 로동계급이며 앞으로 이 빛나는 투쟁전열을 옹호고수하고 변함없이 이어 나가야 합니다.》

가차도 귀찮았다. 하지만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당에 조국수호의 무쇠마치가 필요할 때면 열적의 쇠물폭포로 화답해나서고 조국연명의 강철기둥이 오구될 때면 증산의 불바닥이

은 나라를 들끓게 하던 성강로 동계급의 그 정신력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셨다.

모진 고난과 시련의 팽풍속에서도 흔들림없고 변하지 않는 그 투쟁정신만 있으면 이 세상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시며 조국수호, 사회주의수호의 결전에서 이곳 로동계급이 다시 한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대교조의 선봉에 설것을 호소하실 때 모두는 죽어도는 격정을 금지 못하였다.

시련의 두터운 얼음장을 깨지며 성강은 일어섰다.

한눈의 원로와 연로, 한W의 전력이 목숨처럼 귀했다. 아침이면 손수레에 파철을 싣고 공장 정문으로 들어서던 졸업원들이며 내인일과 로인들, 땅우에 없으면 땅속을 파헤치고 땅속이 없으면 바다를물속을 헤쳐며 전기로에 넣을 파철을 한덩이, 한덩이 마련하던 그 모습들을 온 나라가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세차게 뿜어나오는 팽각수를 한몸으로 막아내 출장을 보장한 로동자는 누구였으며 쇠물남비를 문 천정기둥기 자 못박아 멈춰섰을 때 그것을 한치한치 인력으로 끌고가 거여이 쇠물을 쏟아낸 천투원들은 또 누구였는가.

우리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지에 따라 파철정중수송열차가 편이여 기적을 울리며 북방의 철의 기지로 들어설 때 성강사람들은 최전선의 용사들에게 보내주시는 포탄수송열차로

대환단!

그 이름 부를 때면 누구나 백두산천리발을 하얗게 뒤덮은 7월의 감자꽃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인 10월의 감자산을 먼저 그려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늘어난 대흥단사람들이 올해는 최고수확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속에 대흥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속에 통일감자심기와 물거름주기, 종합적기회화실현으로 꽃피던 이야기도 좋다. 하지만 며칠전 대흥단감자가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에게 대흥단의 자랑에 대하여, 감자가공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점은 우리 조국의 번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디.》

공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지난해보다 계획이 수천이나 더 늘어났지만 졸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저을랐으며 주제 89(2000)년에는 편이여 월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기적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성강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못한다. 여리차레나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시어 우리 나라 강철공업의 역사적과제였던 주제철생산체계를 완성하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과 주의를.

시련과 난관앞에 주저앉을세라 거듭 찾아오시어 착상이 아주 좋다고, 이제는 제때식재방법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성강에서 하고있는 주제철생산방법을 생산을 들어 지지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정명 믿음을 주시고 술집을 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평도가 있어 성강의 로동계급은 시대의 앞장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으며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승리의 등장초도 부를수 있었다.

오늘도 성강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신 그 불길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있다. 금속공장의 주제화실현을 위해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뼈와 살에 새기고 우리 당의 경제건설전선구상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충선

영원한 혁명

이 땅 그 어디에나 우리 장군님과 뜨거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있다.

얼마전 우리가 략원 기계연합기업소 략원산소분리기공장에서 만났던 8명 당원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지금도 저 조립대앞을 지나나하면 30년전 우리 장군님께 작업모습을 보여드리던 그날이 어제처럼 선히 떠오른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추억을 이어갔다.

주제 73(1984)년 10월 어느날 략원기계공장(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산소분리기를 보여주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산소분리기생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들을 잘 내세워준데 대하여 거듭 이르시면서 지금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훌륭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웅이고 투사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속에 수십명이 한날한시에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날을 평생 잊을수 없습니다.》

조경희동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로당원들의 눈굽은 젖어 있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지만 꼭같은 인생의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정적정명명을 받아안던 그날의 격정은 참으로 큰 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1만 5000㎡의 대형산소분

리기를 시급히 만들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을 때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입당신청서를 읽었던 력사적인 그날의 당총회장소에 다시 섰다.

《위대한 장군님, 저희들은 1980년대에 산소분리기와 더불어 장군님과 맺은 혈연의 정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불타는 맹세를 안고 산소분리기생산전두에서 영웅적위훈을 발휘한 략원의 8명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온 나라를 얼마나 격동케 하였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데 오세현, 리득훈, 리현치, 독고정훈동무들도 주위에 모여 섰다. 략원의 8명 당원들이 다 모인셈이었다.

그들의 추억은 잊을수 없는 몇해전 1월에도 이어졌다.

정월의 찬바람을 맞으며 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실 때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고, 지금도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방의 기념사진을 우러르던 그이께서 8명 당원들이 략원의 앞장에서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날을 평생 잊을수 없었습니다.》

조경희동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로당원들의 눈굽은 젖어 있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지만 꼭같은 인생의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정적정명명을 받아안던 그날의 격정은 참으로 큰 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1만 5000㎡의 대형산소분

리기를 시급히 만들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을 때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입당신청서를 읽었던 력사적인 그날의 당총회장소에 다시 섰다.

《위대한 장군님, 저희들은 1980년대에 산소분리기와 더불어 장군님과 맺은 혈연의 정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불타는 맹세를 안고 산소분리기생산전두에서 영웅적위훈을 발휘한 략원의 8명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온 나라를 얼마나 격동케 하였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데 오세현, 리득훈, 리현치, 독고정훈동무들도 주위에 모여 섰다. 략원의 8명 당원들이 다 모인셈이었다.

그들의 추억은 잊을수 없는 몇해전 1월에도 이어졌다.

정월의 찬바람을 맞으며 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실 때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고, 지금도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방의 기념사진을 우러르던 그이께서 8명 당원들이 략원의 앞장에서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날을 평생 잊을수 없었습니다.》

조경희동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로당원들의 눈굽은 젖어 있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지만 꼭같은 인생의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정적정명명을 받아안던 그날의 격정은 참으로 큰 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1만 5000㎡의 대형산소분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하나입니다.》

며칠전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평성시 2중영역의 불은기 덕성소학교를 찾았을 때였다.

최영애교장은 학교가 이룩한 성과속에는 수십명이 나 되는 10월8일모범교수자라는 부름을 대할 때마다 나라의 교육사업에 대해, 후대들을 위해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이 어찌와 가슴뜨거워지곤 합니다.》

백두산기슭의 작은 학교가 떠오르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와 나의 가슴은 뭉클 찢어졌다.

주제 91(2002)년 10월 8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5분이 되는 뜻깊은 그날 백두산기슭 무봉마을 로동자녀들을 위해 생겨난 무봉중학교(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

한참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서서 조선력사를 배워주고있는 교원의 설명도 들어주시고 사식민, 벽보판, 성적소관판들이 규모있게 걸려있는 교실을 둘러보시며 교실을 아담하게 꾸며주셨다고 치하도 해주

는 자재로온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어려웠다.

학생들의 일과와 성적제정기준 등을 알아보시고 교원들은 나라의 흥망과 관련한 중요한 교육사업을 맡은 혁명가라고 하시면서 교육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던 위대한 스승의 그 뜻이 가슴을 찢었다.

은 나라 인민의 속하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그날 천 길같은 시간을 후대교육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신 우리 장군님!

못 잊을 그날과 더불어 10월8일모범교수자라는 뜻깊은 부름이 이 땅우에 태어났다. 그이의 가르침을 심장에 새기고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피라는 노력을 바쳐왔던가. 그 진한 탐과 열정은 그대로 주제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백두산기슭에 자리잡은 무봉마을의 학교에 남긴신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 아래 새 세기 교육혁명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우리 교육자들의 가슴속에 오늘도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그렇다. 무봉마을의 산골 학교는 크지 않아도 절세위인의 위대한 교육중시사상과 후대사랑을 새겨주는 크나큰 학교로 높이 솟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병철

대흥단!

그 이름 부를 때면 누구나 백두산천리발을 하얗게 뒤덮은 7월의 감자꽃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인 10월의 감자산을 먼저 그려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늘어난 대흥단사람들이 올해는 최고수확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속에 대흥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속에 통일감자심기와 물거름주기, 종합적기회화실현으로 꽃피던 이야기도 좋다. 하지만 며칠전 대흥단감자가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에게 대흥단의 자랑에 대하여, 감자가공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점은 우리 조국의 번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디.》

공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지난해보다 계획이 수천이나 더 늘어났지만 졸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대흥단!

그 이름 부를 때면 누구나 백두산천리발을 하얗게 뒤덮은 7월의 감자꽃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인 10월의 감자산을 먼저 그려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늘어난 대흥단사람들이 올해는 최고수확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속에 대흥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속에 통일감자심기와 물거름주기, 종합적기회화실현으로 꽃피던 이야기도 좋다. 하지만 며칠전 대흥단감자가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에게 대흥단의 자랑에 대하여, 감자가공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점은 우리 조국의 번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디.》

공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지난해보다 계획이 수천이나 더 늘어났지만 졸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대흥단!

그 이름 부를 때면 누구나 백두산천리발을 하얗게 뒤덮은 7월의 감자꽃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인 10월의 감자산을 먼저 그려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늘어난 대흥단사람들이 올해는 최고수확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속에 대흥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속에 통일감자심기와 물거름주기, 종합적기회화실현으로 꽃피던 이야기도 좋다. 하지만 며칠전 대흥단감자가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에게 대흥단의 자랑에 대하여, 감자가공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점은 우리 조국의 번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디.》

공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지난해보다 계획이 수천이나 더 늘어났지만 졸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대흥단의 자랑

규모, 시공형식을 가르쳐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도 파견해주시어 몇몇이감자종합가공기지로 일떠세워주신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몸소 감자술맛도 보여주시고 영포장방법도 가르쳐주시어 여러가지 감자음식을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라 현대과학기술이

지표가 안받침된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뜻 잊을 이야기들을 어찌 다 말할수 있으랴.

아버지장군님의 그 사랑을 이어 대흥단감자가공장의 만가동 보장을 위해 은정어린 대책을 취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기에 공장의 자랑이 나날이

대흥단!

그 이름 부를 때면 누구나 백두산천리발을 하얗게 뒤덮은 7월의 감자꽃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인 10월의 감자산을 먼저 그려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늘어난 대흥단사람들이 올해는 최고수확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속에 대흥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속에 통일감자심기와 물거름주기, 종합적기회화실현으로 꽃피던 이야기도 좋다. 하지만 며칠전 대흥단감자가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에게 대흥단의 자랑에 대하여, 감자가공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점은 우리 조국의 번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디.》

공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지난해보다 계획이 수천이나 더 늘어났지만 졸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대흥단!

그 이름 부를 때면 누구나 백두산천리발을 하얗게 뒤덮은 7월의 감자꽃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인 10월의 감자산을 먼저 그려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늘어난 대흥단사람들이 올해는 최고수확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속에 대흥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속에 통일감자심기와 물거름주기, 종합적기회화실현으로 꽃피던 이야기도 좋다. 하지만 며칠전 대흥단감자가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에게 대흥단의 자랑에 대하여, 감자가공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점은 우리 조국의 번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디.》

공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지난해보다 계획이 수천이나 더 늘어났지만 졸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우리 장군님 다녀가신 일러입니다

그 은정 노래하는 사회주의선경 서흥군 범안협동농장에서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양어장이 시원하게 펼쳐진 농장벌과 어울려 범안리의 모습은 한복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집집마다 발전소의 전기로 밤을 짓고 난방도 보장하며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선경-서흥군 범안리.

주제 90(2001)년 7월의 어느날 이곳 범안리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전진길에서 쌓으신 피로가 다 풀리신듯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고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이라고, 사회주의 선경이라고 정답게 말씀하시었다.

범안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영광의 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어가고있다.

농장에서는 심한 왕가물이 계속된 올해 알곡생산은 물론 온실남새생산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선경을 자랑하며 나날이 더욱 번모되는 범안 땅은 인민을 위해 바친의 모든것을 장그러 바치신 아버지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오늘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더 높은 석탄생산성으로 2.8 직동청년탄광에서

오늘도 2.8직동청년탄광의 탄부들은 잊지 못할 5년전 어느날 몸소 탄광을 찾아주시고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잊지 못한다.

직동의 탄부들은 언제나 석탄생산으로 땅을 받들어온 참으로 총직천 로동계급이라고 자부하는 평가를 안겨 주신 아버지장군님.

2.8 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그 믿음, 그 사랑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최근에만 해도 탄광에서는 운반계통의 현대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석탄생산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

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보다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종합적명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대중의 앙망된 영예에 맞게 탄광당조직에서는 2000㎡의 버섯생산지과 4000㎡의 온실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땅의 의도에 맞게 잘해나가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탄광의 모든 깡깡마다에 사회주의증산정열

대흥단!

그 이름 부를 때면 누구나 백두산천리발을 하얗게 뒤덮은 7월의 감자꽃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인 10월의 감자산을 먼저 그려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늘어난 대흥단사람들이 올해는 최고수확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속에 대흥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속에 통일감자심기와 물거름주기, 종합적기회화실현으로 꽃피던 이야기도 좋다. 하지만 며칠전 대흥단감자가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에게 대흥단의 자랑에 대하여, 감자가공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점은 우리 조국의 번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디.》

공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지난해보다 계획이 수천이나 더 늘어났지만 졸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대흥단!

그 이름 부를 때면 누구나 백두산천리발을 하얗게 뒤덮은 7월의 감자꽃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인 10월의 감자산을 먼저 그려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늘어난 대흥단사람들이 올해는 최고수확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속에 대흥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속에 통일감자심기와 물거름주기, 종합적기회화실현으로 꽃피던 이야기도 좋다. 하지만 며칠전 대흥단감자가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에게 대흥단의 자랑에 대하여, 감자가공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점은 우리 조국의 번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디.》

공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지난해보다 계획이 수천이나 더 늘어났지만 졸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대흥단!

그 이름 부를 때면 누구나 백두산천리발을 하얗게 뒤덮은 7월의 감자꽃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쌓인 10월의 감자산을 먼저 그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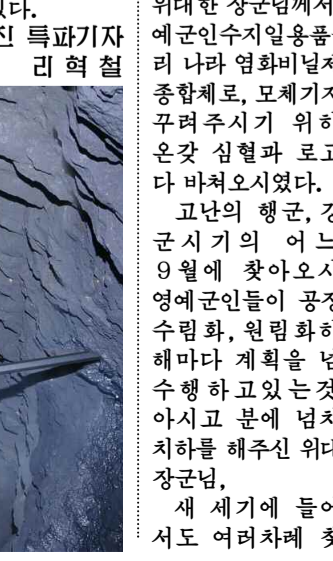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펼쳐나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늘어난 대흥단사람들이 올해는 최고수확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속에 대흥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속에 통일감자심기와 물거름주기, 종합적기회화실현으로 꽃피던 이야기도 좋다. 하지만 며칠전 대흥단감자가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에게 대흥단의 자랑에 대하여, 감자가공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점은 우리 조국의 번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디.》

공장의 일군은 우리에게 매일 많은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지난해보다 계획이 수천이나 더 늘어났지만 졸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백승의 전통을 이어 원수들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밟개버리자

연평도포사격전투승리 4돛기념 군민련환모임 진행

【강령 1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대한 전민련환의 분노가 무섭게 분출되고있는 가운데 연평도포사격전투승리 4돛기념 군민련환모임이 23일 강령군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는 연평도포사격전에서 쓰디쓴 참패의 교훈을 찾은 대신 반공화국 《인권》소동과 역대 최대규모의 《호국》전쟁연습과 같은 날강도적인 침략책동에 미처 날뛰지 못한 인민의 삶이 피투성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켜버리고 어리석게 놀아내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에 대한 열렬적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들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선군의 기치따라 백승철치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 리성국,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영호, 도인민위원회위원장 최정룡, 관계부문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연평도포사격전투에 참가하였던 군인들과 강령군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 앞서 인민군인들과 강령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연평도포사격전투에서 위훈받은 군인들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꽃다발을 인양하며 그들의 혁명적 공로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모임에서는 리성국군단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의 연평도포사격전투가 반공화국대침략에 미처 날뛰던 남조선피뢰들에게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래를 보여주고 선군조선의 력사에 자랑스러운 승리의 한페이지를 빛나게 아로새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령장들의 슬하에서 일당백의 슬기와 용맹을 다져온 부대의 장병들은 적들이 그 무슨 《북방한계선》고수를 구실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즉시 가증스러운 연평도에 강위력한 포화력을 들이쳐 백두산총대의 단호한 의지와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강령군안의 인민들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전장으로 달려와 군인들과 한진호에서 운명을 함께 하고 물심양면의 원호로 전투원들을 고무하여 군민대단결의 참모습을 과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혁명무력은 적들이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우리 령토에 떨어뜨린 천금같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즉시(즉시) 열렬히 포탄을 열어 침략자들을 완전히 괴멸시킬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업무를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연설자는 연평도 미제와 피뢰군무리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오늘도 최대열점지역인 서남해상에서 매일같이 화약냄새 풍기며 무모한 새침정도발책동에 미처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초해하고 매빠진 승양의 의회, 미친개의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은 서남해상을 원수들의 최후멸망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릴 만만한 투지와 필승의 신념이 담겨 있다고 말하였다.

대원합부대 장병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들에게는 그 누구도 모른다든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혁명적령군계와 군공을 확립하기 위한 수업을 주선으로 불어넣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상과 도덕이 만장약된 총대는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법이라는 철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의 서남해상에서 사상의 성세,

신념의 성벽을 더 굳게 쌓으며 백두산총련 열풍의 불도가니속에서 부대, 구분대들을 무적필승의 근위대로 만들것이라고 말하였다.

연평도포사격전투에서 파시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들과 어깨 결고 조국방선을 그 어떤 원수도 담보하지 못하는 금성철벽의 보루로 굳건히 다져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적들을 조준경안애 모조리 걸어넣고있는 대원합부대 장병들은 원수들이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연평도를 비롯한 적들의 서해 5개섬부터 즉량쳐버릴것이며 연평도포사격전투의 승리를 침략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모조리 쓸어버리는 최후승리로 이어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봉현 강령군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연평도의 불바다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주제99(2010)년 11월 23일은 선군조선의 승리의 날로 력사에 길이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선군명장의 담력과 배양으로 싸워이긴 연평도포사격전투의 승리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그날의 승리는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싸울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가슴후련한 승리의 그날 강령군안의 인민들이 원수들이 달려들면 제일먼저 달려나갈 조국의 서남해상을 목숨바쳐 사수할 열의의 의지를 다스리고 억척같이 새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인민군대를 아끼고 사랑하며 물심양면으로 힘껏 원호하고 국방력강화에 필요한 모든것을 무조건 보장하며 혁명의 수도 평양과 잇닿은 강령만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한울일이 토론을 하였다. 그들은 4년전의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 《기념》하는 피괴적책당은 천하에 돌도 없는 버림치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원수들이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천금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에 항복해서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초토화해버리겠다는것이 우리 군인들의 만만한 투지이고 배짱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인들을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의 만능포병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백승의 전통을 이어 원수들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밟개버릴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싸움준비에서는 매일이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일련의 분위기속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 일당백

의 만능전투원으로, 조국통일의 결사대로 역제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싸움은 언제 한다는 판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발사직전의 총관과도 같이 고도의 경계상태에서 살며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주변에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최우명으로 삼고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고 인민의 웃음에서 긍지를 느낄줄 아는 참다운 인민의 군대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리성국 강령군지명위원회 위원은 연평도포사격전투가 있는지 4년이 흘렀지만 할바라, 할바라 진감하였던 그날의 포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강령군 인민들은 지난 시기와 같이 앞으로

원군사업에 앞장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군민대단결에 모든 승리의 원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만일 도발자들이 이 땅, 이 앞바다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뜨리면 군인들과 한진호에서 원수들을 모조리 격멸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천하제일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혁명강군의 밝은 앞날을 촉박해주시고 회세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이긴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나갈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사회주의혁명공의 체모에 맞게 철길과 그 주변을 일신시키자

현지를 직접 밟아가며 혁명적대책을 세워나간다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날을 따라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올해 단계별목표에 중심구역에서의 도로개건, 원림록화, 건물보수 등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온 시에서 11월에 들어와 서포구 철길과 그 주변환경을 근본적으로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불과 보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공사량의 많은 몫이 수행되어 오며 서포구 철길주변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일신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를 앞세워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내치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꾸리기사업은 서포구 철길주변의 환경을 시대의 요구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것으로서 작업량은 매우 방대하다. 철길부문에선 수만㎡의 로반차갈소, 20km의 도랑정리를 진행하면서 도랑과 주변에 수천그루의 왜싸리와 평양삼나무 등을 심어야 한다. 수천㎡의 철길연선지대에 있는 다층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의 외장재철기, 지붕 및 벽체보수를 하면서 철길가까이에 있는 수백동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지대정리를 하여야 한다. 서평양-서포

평양시 지휘부의 일군들

철길과 도로주변의 원림조성과 살림집보수 등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일일이 토론된 이날의 류다른 모임은 2시간가까이 진행되었다. 이번 꾸리기사업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작업량과 그것을 맡아 수행할 당원들이 현지에서 즉시에 확정된 그야말로 야전식전투조직이었다.

그날을 계기로 시급기관, 기업소들과 형제산구역 기관, 기업소, 동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맡은 전투와 자를 일제히 차지하였다. 서평양역으로부터 서포정년역 사이의 수km구간의 철길과 도로, 그 주변의 면모를 최단기간에 일신하기 위한 총공격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어떻게 만질을 하고 구보로 뛰는가에 달려있다. 총공격전의 서막을 전두적으로 멘 시의 책임일군들은 해당 과제를 맡은 자와 구역의 일군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임을 보였다. 이를 위하여 이전시기와는 달리 새로 조직하는 시지휘부의 각 부파별책임자들은 도시경영, 원림록화, 력적운수부문의 시급기관 책임자들을 선정한 다음, 그 주변의 면모를 최단기간에 일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직접 현지에서 나와 하루 전투일정을 총화하고 다음날 전투일정을 포지하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놓여왔다.

모든사업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구간을 표준철길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갈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한편 자체로 수백㎡의 자갈을 마련하여 철길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모란봉구역에서는 경계석을 전부 새로 교체하고 철길주변의 건물들들에 대한 콘크리트포장 1만 5천여그루의 왜싸리나 무심기를 진행하였다. 대성구역과 형제산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 짧은 기간에 많은 일감을 해체했다.

본사기자 류성국

수도려객운수지도국에서

수도려객운수지도국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서포구 철길 주변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서평양-서포구간의 260개이상에 달하는 무개도 전차선로전주들을 도색하고 불리한 전주들을 교체하였으며 전주간에서 현수대의 수평잡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수km에 달하는 골짜기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세 개 바벨을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위생문화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이 멀어질지라도 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라야 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참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지난 5일 밤 10시, 지도국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무개도전차사업, 폐도전차사업, 버스사업 등 지도국에 수임된 당, 행정책임자들이 다 참가한 회의에서는 지도국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서

평양-서포구간의 무개도전차선로를 일신하기 위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단위별로 해당 구간이 분담되고 자체와 설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다음날부터 지도국책임일군들이 현장에 전투파를 정가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각 사업소들에서는 다음날부터 철관구조물제작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져 전주높이맞추기작업도 최단기간에 계속될 수 있었다.

지도국일군들이 앞장서 걸린 문제를 풀이해주고 최선적결치사업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사업소들사이에는 사회적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서평양무개도전차사업에서 서달리는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종전에 전주를 가로 지르던 낮은 가벽해체작업을 벌이면서 체계적으로 골짜기에서 높은 실적을 올렸다.

사동배사업소, 락방도전차사업소 로동자들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현수대의 로동자에서 모범을 보인대 이어 많은 구간에서 새 가벽을 하루사이에 설치하였다. 결국 다음날 전주교체작업은 전주간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튿날이 되었다. 지난 10일 현장에서 진행된 모임에서는 서로 차이나는 전주의 높이를 어떤 방법으로 맞추겠는가 하는 문제가 토의되고있었다. 이때 지도국적인 일군이 한창의 열과 함께 철관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 그는 일군들에게 이 방법을 전한것을 높이 평가하며 어떤것을 하든 자기의 생각을 내놓았다. 며칠전부터 이 문제를 놓고 사색하는 과정에 설비팀과 철관팀의 토의도 충분히 거친 그 계기는 대변에 참가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각 사업소들에서는 다음날부터 철관구조물제작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져 전주높이맞추기작업도 최단기간에 계속될 수 있었다. 지도국일군들이 앞장서 걸린 문제를 풀이해주고 최선적결치사업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사업소들사이에는 사회적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서평양무개도전차사업에서 서달리는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종전에 전주를 가로 지르던 낮은 가벽해체작업을 벌이면서 체계적으로 골짜기에서 높은 실적을 올렸다.

사동배사업소, 락방도전차사업소 로동자들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현수대의 로동자에서 모범을 보인대 이어 많은 구간에서 새 가벽을 하루사이에 설치하였다. 결국 다음날 전주교체작업은 전주간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튿날이 되었다. 지난 10일 현장에서 진행된 모임에서는 서로 차이나는 전주의 높이를 어떤 방법으로 맞추겠는가 하는 문제가 토의되고있었다. 이때 지도국적인 일군이 한창의 열과 함께 철관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본사기자

우리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우리 손으로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 매일 현지를 돌아보면서 불만개소들을 직접일여조사하고 필요한 로획과 자재보장 대책을 따라세웠다. 시의 여러 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철길과 그 주변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서 애국의 수레를 아낌없이 바치었다. 평천구역 당, 행정일군들은 수시로 공사장에 나와 정례를 구제적으로 료해하면서 철길강도를 높이는 데서 나서는 기술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표준철길수준에 이른 구간에 대한 보수구구 작업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일을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하여 구역이 시적으로 제일먼저 맡은 작업과제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서성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맡은 철길구간에 대한 자갈깨기와 보충, 경계석 및 연석로작기, 용벽축조와 왜싸리나 무심기 등 많은 작업과제를 짧은 기간에 해체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중구역의 공장, 기업소, 동, 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애국주의를 체질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업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8일 형제산구역당 위원회의 어느 한 방에서 는 방문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구역의 당, 행정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철길과 그 주변을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정비하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10여km구간의 철길보수, 8천여㎡의 잔디밭과 수천그루의 나무심기 등 해야 할 작업량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구역안의 인민반수만 해도 적지 않은 조건에서 당, 행정 일군들만 동원되어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당정책을 제때에 신속정확히 알려주고 이 사업에 힘있게 불려일으킬 수

있었다. 이럴 때 구역책임일군의 목소리가 회의회장에 울려 퍼졌다. 지난 시기의 낮은 일본배를 털어버리고 우리 일군들부터가 앞장서 서고 가능한 선전 선동력량을 총동원하자. 구역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구역급기관 일군들을 망라하는 선전선동력량이 무어였다. 여기에 구역관내의 중학교와 소학교교원 수백명도 합쳐되었다.

다음날 매개 동, 리의 인민반에서 동시에 벌어진 해설 선전사업은 모든 주민들이 자기 사는 거리와 마을을 제 힘으로 꾸리겠다는 자각과 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곳곳마다에서 붉은기가 펄럭이고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방승선동, 직관선동과 동기동애선동에, 학생위업대들의 맹렬한 경제선동활동은 공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던 지난 13일 깊은 밤, 구역앞에는 다음날작업

산 구역에서

회에 따라 수천그루의 나무모를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었다. 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이 펼쳐나 수천그루의 나무모를 반전투를 벌일 때 구역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한밤을 꼬박 새우며 식수조직사업을 진행하고 나무의 사물들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웠다. 일군들의 이신적은 공사

지면 전지불을 켜고 곳곳에 우동불을 피우면서 한교의 잔디, 한그루의 나무도 애지중지 사수하였다. 자기 사는 거리와 마을을 자기 손으로 번듯하게 꾸리겠다는 일념으로 펼쳐나선 형제산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지금 서포구지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 광명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보복열기 하늘끝에 닿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 원회 성명에 접한 각계의 반향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인권》소 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적 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우리 군

소식에 접하고 끓어오르는 격분을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얼마전 미국에서 백인경찰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최경은 육군중령을 총으로 무참히 쏘아죽인 사실을 알고있다.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일어난 살해사건은 미국이야말로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한 인권유린국이라는 것을 폭로해주고있다.

미국을 단대해 짓부셔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할것이다.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최후의 결사전에 돌입할 기세에 넘쳐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겠다.

없는 천추의 한을 남긴것도 모자라 또다시 미국의 광란적인 《인권》소동에 합세한 일본을 추호의 용서도 없이 통째로 초토화시켜버려야 한다.

악의 총본산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겠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봉남은 조국과 민족애를 최를 짓고 말아난 어중이떠중이들의 잡소리를 끊어모아 유엔마당을 어지럽힌 미국의 추태는 못된 버저장판바다에서 모로 건너는 격의 불망나니짓이 아닐수 없다고 격분해 넘쳐 말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의 인권보장제도가 어떻단 말인가.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제도만큼 좋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황금기 인간의 생명도 우리도 결정하는 미국에 우리도 무상치로 제도가 얼마나 좋고 무로교육제도도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것을 알수가 없다.

참다운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모하게 날뛰는 자들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십년을 두고도 아무리 설명해야 알아듣지 못하고 강제로 노릇만 풀라서 하는 미국을 저 태평양바다속에 수장해버릴 지로 호환되어있다. 미군악기들이 두드고 후회하게 미국방을 제가루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백두산 혼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자한다.

참다운 인민의 세상에서 가장 값높은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려는 이 나라 공민의 한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하면서 조선래리드위원회 김길봉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권의말의 참뜻도 알지 못하는것들이 합부로 우리의 인권을 침해할것이고 저울질한다니 놀들이 노는 꼴이 정말 가소롭고 어리석게 짝이 없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미국의 《인권》소동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체질적거부감과 병적인 적대감때문에 벌어지는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망당이 아니냐.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외상에 먹칠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도 힐끗으며 미친개처럼 너두리질을 해대는 저놈들을 우리 인민이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미친개에 짓어대면 몽둥이로 사들배를 분질러놓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배짱이고 의지이다. 오늘 우리의 인민은 20세기 초엽의 불쌍한 조선인민이 결코 아니다.

물범 번술 번벌 미국을 따라 다니다가는 졸경을 치르게 될것이다

이 될수 있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이런 소동이 통할수 있었지만 자취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공화국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EU의 어중이떠중이들이 헛나발을 불어대며 미국의 광란적인 《인권》소동에 함께 춤을 추었다니 정말 가소롭고 어리석게 정조인민내무군 군관 장영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사참고서 처신하려는 그들이 그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인권유린의 양조인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가.

제 부모처자도 모두 버리고 조국에서 달아난 인간쓰레기들이 몇몇의 말에 목이 매어 제사처대는 썩은 길에 그 무서운 실태와 객관성이 있다고 머저리처럼 행동하는가.

우리는 최후의 결사전에 돌입할 기세에 넘쳐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겠다.

우리는 최후의 결사전에 돌입할 기세에 넘쳐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겠다.

우리는 최후의 결사전에 돌입할 기세에 넘쳐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겠다.

우리는 최후의 결사전에 돌입할 기세에 넘쳐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겠다.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인권결의》의 강압통과를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으로 존엄히 단죄하며 전면배격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20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러시아의 따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하여 이번 《인권결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허위날

조자들을 모아놓은 모략문서라고 개탄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가 조선으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행동에 대처한 조선의 정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것이라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리아 노보스피통신, 인메르프스통신, 신문들인 《모스콥스키 프소볼레즈》, 《에

프랑스단체 강력히 규탄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3일 인터넷홈페이지에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배타살포행위를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허울을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체의 비행을 거부할 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허울을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체의 비행을 거부할 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허울을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체의 비행을 거부할 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다.

적들의 음모책동 규탄

이란에서 반미시위

가를 잘 알수 있다. 지정학적위치로 볼 때 이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원유와 천연가스수출원천지인 동시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수송통로로서 그 지위가 자못 크다.

이탈리아의 씨펠리아에서 19일 각종 위협행위를 일삼았던 마피아조직이 드러내 16명의 범 죄자가 체포되었다. 이보다 앞서 18일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를 비롯한 북부지역에도 마피아조직들이 적발되어 40명의 범죄자들이 붙잡혔다 한다.

기대인사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허울을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체의 비행을 거부할 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허울을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체의 비행을 거부할 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허울을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체의 비행을 거부할 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허울을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체의 비행을 거부할 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허울을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체의 비행을 거부할 수단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다.

오늘의 세계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

월동지역의 적구적인 노획

월동지역은 산림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로씨야의 보고고로 불리우고 있으며 전방이 매우 큰 지역으로 되어있다.